

쏘.....프트웨어??!!

HR도 알아야 할 소프트웨어



글_이춘식 LG전자 SW역량강화팀 책임

소프트웨어를 잘한다는 것은?

ChatGPT, Stable Diffusion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리뷰하며 더 훌륭한 코드를 제안해 주고,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 주기도 한다. 10년 전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 치운다'는 말이 사실임을 경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잘한다는 것, 다시 말해 소프트웨어 역량이 높다는 것은 첫째로 고객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거나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획 역량', 둘째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역량', 셋째

로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관리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기본기와 빠른 학습 능력이 절대적이다. 개발의 기본기는 큰 관점에서 정리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아키텍처 설계 역량,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역량, 버그 없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테스트 역량이다. 빠르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업데이트되는 현대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는 개발자의 학습 능력이 생산성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은 개발자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개발자 성장 로드맵,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테크놀로지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이제 소프트웨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해졌다. 이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방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별, 도메인별로 개발자의 성장 로드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개발자 스스로 배움의 여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Developer Roadmaps(<https://roadmap.sh>)와 같은 가이드가 필요하다.

카네기 멜런 대학교를 설립한 Andrew Carnegie는 'My Heart is in the Work'라는 명언을 남겼다. 개발자는 개발 현장에서 성장한다. 자신의 산출물 혹은 멋진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다. 개발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멋진 프로젝트, 그들이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시대에 개발자로 살아남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또 다른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측면으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변화에 맞춰 빠르게 진화하는 모습, 소위 말하는 리스킬링(Reskilling)과 업스킬링(Upskilling) 관점에서 성장을 도모하면 된다. 나심 탈레브의 저서 『안티프래질』은 깨지지 않으면서 더 강해지고 발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개발자는 이 개념으로 성장하는 필연적인 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의 중요성

모든 것을 새롭게 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플랫폼과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기도 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중요한 활동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 활동이다.

소위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회사들을 보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개발자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Developer Relations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밖으로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훌륭한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마련한다. 안으로는 개발자 만족도 향상을 비롯한 뛰어난 개발 문화를 형성하는 종합 예술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유독 소프트웨어 개발자 행사, 컨퍼런스, 세미나, 밋업 등 다양한 개발자 중심의 이벤트가 많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가? 개발자의 심장을 건드리는 활동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요가 많은 기술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떠오르는 기술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사업적 전략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겠지만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맞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HRD